

영원히 삶을 설레이게 하는 것들

가장 오랜 이력의 병...역마살 여행 그리고 책들

곽재구

시인

‘역마살’이라는 게 있다. 이른바 떠돌이의 병, 짐시증을 일컫는 말이다. 낯선 세계에 대한 그리움,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지닌 숙명과 같은 것이라는 점에서 이 ‘병’은 인간이 지닌 가장 근원적이며 오래된 이력의 병에 속한다.

사주에 낀 역마살의 유무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레 이 병을 앓기 마련이다. 범상하게 바뀌는 일상들, 낯애안 작은 포구의 여인숙에서 묵은 하룻밤, 그물코를 낀 팔뚝 굵은 사내들, 새로 사권 여자와의 차 한 잔, 비센데 알레이상드레의 읽히는 시편들, 농가의 담장 밑에 피었다 지는 죽두리꽃…….

기실, 우리들이 늘상 느끼고 만나고 헤어지는 그 모든 풍경들이 역마의 병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이 병은 따로 병이라 불리워지지 않아도 좋을 스스로의 자유를 지닌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병이 아닌 ‘약’, 인생의 한 시기를 치유해내는 독특한 처방제로서 이 병은 존재하는 것이다.

만주에 사는 조선족 동포들은 이 병에 관한 언어인류학적인 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있다. ‘나그네’라는 말과 ‘애인’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다. 만주 동포들은 자신의 남편을 ‘나그네’라고 부른다. 남편이라는 말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나라를 빼앗기고 삶에 지칠대로 지친 당대의 남정네들은 결혼을 안주의 시작으로 보지 못했다. 결혼 다음날 삶의 방편을 찾아 집을 떠나는 경우조차 다반사였다. 결혼한 지 2,3년 안에 집을 떠나는 경우까지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의 100%의 확률을 보장하는 일이기도 했다. 자연, 새로 만난 남정네는 남편이 아니라 ‘나그네’였던 것이다. 그 나그네들은 집을 떠난 지 몇 년 만에 불쑥 찾아들기 십상이었고 객지의 신산스러운 삶에 저들대로 찌든 남정네의 눈에 따순 밥을 지어 올리는 아낙네의 모습은 아내가 아니라 절실한 ‘애인’이었던 것이다. 남편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아내라는 말을 그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각설, 요즘은—일부의 구도자들이나 예술가들의 방향을 제외하고는—이 역마살을 독하게 앓는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많지 않다. 삶이 그만큼 강박한데다 발달한 교통, 정보문화 따위들이 역마살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들을 일정 부분 제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로 가족끼리 동해안의 모래알과 3박4일쯤 텅골다 오는 것으로, 양귀자의 새로 나온 소설책을 읽는 재미로, 실비아크리스텔이 주연한 비디오테잎을 보는 맛으로, 아니면 다달이 들이닥치는 주택청약예금을 허겁지겁 보는 것으로 이 근원적이며 원초적인, 아름다운 ‘병앓이’를 대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찌 이쯤으로 역마의 병에 대한 아쉬움이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말 그대로 역마는 역마이어야 제 맛이 나는 것이다. 배낭 하나를 메고 하루 콜라 한 잔으로 기차역 대합실에서 벤치잠을 자며 새로운 세계, 새로운 문물과 만나는 떠돌이 여행은 역마의 본질과 근접해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2년 전 가을, 중국의 사막지방을 여행한 적이 있었다. 서안과 란주, 트루판과 둔황, 우루무치를 경유하는 코스였다. 이른바 비단길, 실크로드로 불리우는 길이었다. 혼자이며 철저히 고독한 그 여행을 위해 나는 1년 가까운 준비를 했었다. 준비의 절대적인 몫은 당연히 돈에 관한 것이었다. 나는 여행의 기본경비 외에도 가장으로서 일정한 분량의 생활비를 비축해 두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아침 저녁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분다. 아득히 먼곳 어디선가 가을이 오고 있는 것이다. 바람이 좋은 가을날은 역마살이 피기 참 좋은 때이다. 여행이 역마의 또다른 이름이며 여행의 최대의 친구, 역마의 제일 가까운 친구가 책이라는 생각이 든 것은 최근 1,2년 사이의 일이다.

그리고 그 돈에 관한 문제가 어렵사리 해결되었을 때 바빠 중국의 산동반도로 가는 배에 올랐던 것이다.

그 여행에서 나는 역마살이 되게 긴 몇몇의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 역마의 질과 량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은 확실히 나보다 우월했으며 선배였다. 사이먼 콕스라는 영국인 친구는 옛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 그러니까 지금의 서안에서 만났다. 서른을 갓 넘긴 그에게는

동행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미모는 아니었지만, 친근감이 있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애인이냐고 물었더니 아니라고 대답했다. 부부냐고 물었더니 거의 절집을 하며 그냥 친구 사이라고 말했다. 어떻게 해서 함께 여행을—한 방을 쓰는—하게 되었느냐 물었더니 대답이 걸작이다. 아침 출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지금의 아가씨에게 함께 여행할 의향이 없느냐 물었더니 곧장 OK. 그레 만사 제쳐두고 곧장 홍콩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다고 한다. 사이먼의 여자 친구는 이동하는 투어버스 내에서도 줄곧 책만 들여다 보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기긴 꽤 암전하게 생겼는데 내숭을 좀 떠는 성격의 아가씨일 거라는 생각을 했었다. 하긴 출근길에 함께 여행하자는 제안을 받고 곧장 여행길에 올랐으니 내숭을 떨어도 한참 떨 수 있는 친구라는 생각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도 몰랐다. 화청지나 반포유적지 같은 데에 둘러서도 그녀는 반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그녀는 아예 맨 뒷자리에 앉아 책을 보았다. 다음날 진시황릉을 비롯한 몇 군데의 관광지를 더 둘러보았는데 나와 사이먼은 시종일관 떠들었고 사이먼의 여자 친구는 예의 그 독서에 열중이었다. 저녁엔 자유시장 내에 있는 로변식당에 들렀는데 만두를 먹으며 처음으로 그녀와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다. 내가 먼저 물었다. 책을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여행중의 책임기는 여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녀가 대답했다. 영국에 있을 적부터 나는 책을 읽었다. 하루 한 권씩. 나는 삶 자체를 여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을 떼어내어 특이하게 그 부분만을 여행이라고는 생각할 보지 않았다. 영국내에서의 내 삶이 여행이었듯이 중국내에서의 내 삶 또한 여행의 한 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중국이라고 해서 더 특별한 의미가 부여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서의 독서 또한 당연히 내 여행의 중요한 몫이다. 30일간의 여행을 위해 30권의 책을 준비해 왔는데 영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나는 그 책들을 다 읽을 것이다. 그녀의 말은 그렇게 끝났다. 그녀의 말을 들으며 명색이 한국에서 네권씩이나 시집을 냈던 이력을 지닌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했던지……. 마침 우리 걸로 한 소녀가

바구니에 담긴 꽃을 팔러왔기 때문에 내 부끄러움은 어느 정도 숨겨질 수 있었다. 나는 꽃 한 송이를 샀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 꽃을 전해 주었다. It's flower for you and your books. 꽃을 받아든 그녀가 ‘기념하겠다’며 환하게 웃던 모습이 지금도 떠오른다.

내가 그 여행에서 두번째 만난 방랑자는 커리라는 이름의 캐나다인이었다. 나와 그는 둔황의 버스정류장에서 만났다. 막고굴로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2m가 넘는 큰 키의 그가 정거장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다. 그는 위글루족들이 입는 검은빛의 오바와 가죽 장화를 신고 있었는데 그가 맨 배낭이 아니었다라면 영락없는 위글루족으로 생각할 정도의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가 일본어로 내게 말을 걸어왔다. 아마 나를 일본인 여행객으로 생각한 때문이었다. 그때 그의 배낭 아래에 붙은 작은 태극기가 눈에 띄었으므로 나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한국인’이라 대답했다. 그는 크게 반가워했다. 한국에 이미 두 차례 들른 바가 있노라는 말을 덧붙였다. 여기 오기 전에는 6개월 동안 일본에서 머물렀는데 일본어는 그 동안 배웠노라 이야기했다. 한국어는 한국에서 머문 기간이 모두 한 달밖에 안돼 잘 하지 못한다며 김치 불고기가 썩 맛이 있었노라, 언젠가 다시 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말도 했다. 세수를 제대로 못한 그의 구렛나릇은 꽤 지지분했고 손톱 밑에 까만 기름때가 박혀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자신을 안경제조공이라 소개했다. 아울러 6개월 동안 일하고 나머지 6개월 간은 그동안 번 돈으로 세계여행을 한다고 했다. 나는 그의 직업이 안경제조공이라 생각하고 1년에 6개월간의 세계여행은 좀처럼 그의 직업에 어울리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버스는 늦게 떠오른 아침해—북경표준시 하나인 중국은 동쪽과 서쪽의 시간차가 3시간 이상이다. 북경에서 7시에 뜬 아침해는 서쪽의 사막지대에서는 10시에 뜬다. 이를테면 북경의 아침 8시가 사막지대에서는 새벽이 되는 것이다—를 받으며 막고굴 앞에 도달했다. 천불동 앞에서 갈퀴바지를 멋지게 입은 안내원 아가씨가 설명을 했다. 아가씨가 관람할 동굴들의 일련번호를 불러 주기 시작했다. 전부 외국인인 우리들의 수효는 열다섯명쯤 되었을 것 같다. 그 순간 마주쳤던



낭패감이구나... 나를 제외한 모두 사람이 자신들의 배낭에서 책과 자료들을 꺼내 기표를 하기 시작했다. 아가씨가 번호를 부르면 그들은 자신들의 자료에서 그 번호를 찾아내 표기를 해갔던 것이다. 나는 아무런 자료도 책도 지니지 못했다. 안내원 아가씨가 몇 개쯤의 동굴번호를 불러갔을 때야 나는 비로소 여행 안내책의 한 쪽 귀에 번호들을 적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굴관람이 시작됐다. 다른 여행객들은 자신들이 준비해 온 자료와 안내원의 설명을 들으며 이 동굴에 그려진 벽화와 서 있는 불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자료에 적혀진 것을 근거로 서로간에 흥미있는 대화를 나눠 갔다. 유일한 동양인인 나만이 이 빛나는 동양정신의 한 정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전 관람이 끝나고 근처의 돈황연구소의 식당에서 자장면으로 점심을 때울 수 있었다. 나는 그때 커리의 배낭 속을 처음으로 볼 수 있었다. 약간의 세면도구 외에는 배낭속은 완전히 책과 자료로 가득차 있었다. 안경제조공인 그가 대학을 나왔을

리는 없었다. 그가 준비한 돈황 자료집만도 열권이 넘어 보였다. 내가 이번 여행을 위해 총 준비한 책은 두권이였다. 일본인 이노우에씨가 쓴 「돈황」이라는 소설책(번역판)과 스일보사에서 출간한 중국여행안내서가 그것이었다. 물론 나는 이번 여행을 위해 몇 권의 중국역사개론서를 읽었고 NHK에서 제작한 실크로드와 대항하의 책을 읽기도 했었다. 그리고 그중의 어떤 부분은 참고를 위해 복사하기도 했으나 그 전체적인 분량은 미미했다. 돈황의 천불동에 관한 별도의 자료는 아예 준비한 게 없었다. 나는 내 여행에 뭔가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커리와 나는 유원이라는 이름의 기차역에서 헤어졌는데 나는 우루무치행 1등열차표를 꿀을 수밖에 없었고 중국어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된 커리는 란주로 나가는 3등열차표를 꿀을 수 있었다. 그와 헤어지며 사진 한 장을 찍었다. 천불동 답사를 끝낸 후에도 그는 많은 양의 메모를 했는데 나는 그가 만드는 안경이 예사 안경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할 수 있었다. 그와 헤어지며

이야기했다. 내가 만든 안경은 참 아름다울 것 같다. 어쩌면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일지도 모른다. 앞 부분은 말로 표현했고 뒷부분은 그냥 내 마음 속에 묻어 두었다. 그가 내 어깨를 두 번 툭툭 쳤다.

그 여행 중에 만난 한 가지 풍경만 더 이야기 하자. 북경으로 돌아온 나는 연길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한국인 단체 관광객 일행과 동승하는 '불운'을 겪었다. 40대 사모님 열다섯분쯤이 일행이었는데 그 당시는 중국 관광이 그다지 쉽지 않은 일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사회적 위치나 그들이 지닌 부의 규모가 쉽게 짐작되는 점이 없지 않았다. 작은 플로펠러 비행기 안은 그들이 뿌린 향수 냄새로 가득 찼으며 목걸이와 보석 반지, 팔찌 등으로 한층 현란스러웠다. 그들의 관심은 비행기 안에서 완전히 서울의 부동산시세에 있었다. —그 당시 한국의 부동산 열풍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그들은 무용담처럼 누가 얼마를, 얼마나 짧은 순간에 벌어들이는가 열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그것은

이번 여행의 의의와 아름다움에 대하여 충분히 기뻐하고 감탄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터였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북경에서 서안으로 가던 비행기 안의 풍경이 떠올랐다. 역시 주부들로만 이루어진 일본인 관광단이었다.

그녀들은 떠드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 몇몇은 여행에 관한 인상 같은 것을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고 몇몇은 책을 읽고 있었는데 향후 도착지에 대한 여행 안내서였다. 어쩌다 이런 차이가 벌어졌을까.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다. 아침 저녁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분다. 아득히 먼 곳 어디선가 가을이 오고 있는 것이다. 바람이 좋은 가을날은 역마살이 꽤기 참 좋은 때이다. 여행이 역마의 또 다른 이름이며 여행의 최대의 친구, 역마의 제일 가까운 친구가 책이라는 생각이 든 것은 최근 1,2년 사이의 일이다.